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송년음악회 ‘개세지재(蓋世之才)’...15일 광주빛고을시민문화관



# ‘개세지재’ 명인들과 힘찬 새해의 도약

정윤해 명인·통소연주가 최민 등 출연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 등 무대 잇따라

개세지재(蓋世之才), 세상을 마음대로 다스릴만한 뛰어난 재기를 지닌 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개세지재급 국악 명인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송년음악회가 오는 15일 오후 7시30분 광주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펼쳐진다. ‘개세지재(蓋世之才)’를 주제로 하는 이번 공연 첫 순서는 부산 무형문화재 제8호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 무대다. 계면조를 줄이고 우조와 감산제를 많이 사용하며 경쾌한 느낌을 주는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는 어려운 기교가 집약된 기교의 총수로 평가받고 있다. 전남도립국악원 정윤해 명인의 협주곡 진행한다.

이어지는 무대는 남도민요 ‘육자배기’다. 전라도 지방을 중심으로 불리는 대표적인 민요로 전문 소리꾼들이 부르는 남도잡가의 일종이다. 본디 공밭을 때는 아낙네, 김매는 농부들, 나무꾼들이 부르던 소박한 소리였으나 전문 소리꾼들에 의해 가락과 가사에 세련미와 절제미가 가미된 남도잡가로 발전했다. 이날 공연에서는 국악관현악과 어우러지는 육자배기를 들어본다. 다음 무대는 통소연주가 최민과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원들의 통소 합주 ‘함경도 애원성, 북청사자놀이’이다. 함경도 지역 민요 ‘애원성’과 북청사자놀음에서 불려어지는 통소가락을 모아 호소력 짙은 통소만의 뜻깊고 호방한 느낌으로 재구성한 곡이다. 뒤이어 유명 판소리 다섯 마당 중 ‘심청가’ 중 ‘황성 올라가는 대목’을 선보인다. 심봉사가 홀로 탄식하면서 황성 맹인잔치에 가는 에피소드를 아름다운 풍경과 해석적인 방아타령으로 표현한 곡이다. 다음으로 중국 악기와 국악관현악이 협연할 수 있도록 만든 최초의 곡 일후 협주곡 ‘향’이 펼쳐진다. 한

민족의 향기가 얼후의 가락을 타고 중국 대륙으로 퍼져나가기에 영원하며 만든 곡으로 일후연주가 용인대 박두리나 교수가 협연한다. 끝으로 ‘신모듬 3악장·놀이’가 대미를 장식한다. ‘신명을 모은다는 뜻’의 이 작품은 원초적인 생명력과 움직임을 표출하는 사물놀이의 다채로운 장단을 맞출 수 있다. 특히 마지막 무대를 함께 장식하는 광개토 제주예술단(단장 권중성)은 BTS와 멜론뮤직어워드 협연 등을 추진하며 대중적인 인지도를 높여 왔다. 한상일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는 “전통 국악이 전하는 파스한 음악의 운기가 공연장을 찾는 관객 모두의 마음 속에 오롯이 전해지길 희망한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묵묵히 자신들의 길을 걸어온 ‘개세지재’ 명인들과 함께 힘찬 새해의 도약을 다짐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연 티켓은 R석 2만원, A석 1만원으로 광주문화예술회관 또는 티켓링크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 가능하다. 문의 062-415-5403. /최명진기자

●진창현 선생 10주기 기념음악회...오늘 하정웅미술관

# ‘천상의 바이올린’

광주시립미술관은 하정웅컬렉션에 현악기 4종을 기증한 바이올린 명인 고진창현 선생 타계 10주기를 맞이해 추모음악회 ‘천상의 바이올린’을 개최한다.

9일 오후 2시 하정웅미술관에서 열리는 연주회는 랑 현악사중주가 맡았다. 2009년 창단된 랑 현악사중주단은 수준 높은 연주의 기복력 있는 음악단체다. 신정문(비올라) 단장, 이수연(제1바이올린), 김소연(제2바이올린), 윤소희(첼로)로 구성됐다.

제일교포인 진창현 선생은 1976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국제 바이올린·비올라·첼로 제작자 콩쿠르’에서 6개 종목 중 5개 종목에서 금메달을 수상했으며, 1984년 미국 바이올린 제작자 협회로부터 무감사(無監査) 제작자의 특별인정을 받고 마스터 메이커 칭호를 받았다.

진 선생은 하정웅 광주시립미술관 명예관장의 미술작품 기증 모습을 보면서 조국에 대한 사랑과 그 숭고한 정신에 감동을 받아 그와 뜻을 함께 하는 취지로 현악기 4종을 기증했다. 2001년 광주호(제1바이올린)를 비롯해 2002년 대구호(제2바이올린), 한라호(비올라), 백두호(첼로)다. 해당 악기들은 2003년 하정웅 제3차 기증을 통해 광주시립미술관 소장품이 됐다. 악기 기증에는 15세 때 일본으로 건너



故진창현선생.

너가 온갖 역경을 딛고 독학으로 현악기 제작 분야에서 세계적 명장이 된 진 선생의 인생처럼 청년작가들이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성공하기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미술관은 2012년 진 선생이 타계하자 추모음악회 ‘울 밑에 선 봉선화’를 개최했고, 이후 매년 선생이 기증한 하정웅컬렉션 사중주 악기를 사용해 하정웅청년작가초대전 ‘빛’전에서 연주를 해왔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봉선화 현악사중주, 오빠생각, 황성의 달&고향의 봄, 고추잡자리, 봉선화 바이올린 듀엣, 캔터키 옛집, 드보르작 현악사중주 ‘아메리카’ 등 7곡을 연주할 예정이다.

/최명진기자

# 우즈베키스탄서 펼쳐지는 전통국악의 향연

12일 임방울국악진흥회 해외공연 무대  
풍물판굿·부채춤·기악산조 등 선보여



소고춤과 풍물판굿이 함께 하는 남도민요 공연

(사)임방울국악진흥회 제공

임방울국악제 수상자들이 예향 광주의 위상을 널리 선양하는 해외 공연을 펼친다. (사)임방울국악진흥회(이사장 김중재)는 오는 12일 오후 3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한국문화예술의 집에서 임방울국악제 수상자 우즈베키스탄 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중앙아시아 중심 국가이자 실크로드의 영화를 간직한 우즈베키스탄에서 임방울국악제 수상자들이 전통 국악 예술을 펼치는 무대다. 한·우즈베키스탄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간 친선 문화 교류증진은 물론 우리 동포와 교민들의 향수를 달래고 현지인에게는 한국의 독창적 국악예술의 진수를 선보이기 위해 마련된 공연이다.

광주시 주최, (사)임방울국악진흥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김희상 우주우즈베키스탄 대사, 박빅토르 고려인문화협회장, 강창석 한인회 회장, 허선행 민주정통중앙아시아협회장, 주재사무원, 동포와 교민 및 현지시민 등 1천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첫 번째 무대는 지난해 농악일반부 대상(국회 의장상)을 수상한 농악회농악단 박종환 외 4명의 신명나는 풍물판굿으로 시작된다. 제29회 임방울국악제 대통령상을 수상한 이경아 명창이 심청가 중 심봉사 눈뜨는 대목을 들려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한 김민주 외 6명이 민족대화합을 염원하는 화려한 부채춤을 선보인다. 다음으로 기악일반부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김승호

·유세운·조가완 명인이 전통음악의 활력소인 기악산조 무대를, 올해 제30회 대통령상을 수상한 최잔디 명창이 국창 임방울 선생 애창곡인 속대머리와 판소리 춘향가 중 여사상봉 대목을 들려준다. 이어 이수자·박소희·강재인이 나라의 태평성대와 풍년을 기원하는 태평무 공연을 펼치며, 지난해 문화체육부장관상을 수상한 이태경 명인이 ‘백만송이 장미’와 ‘사랑가’를 가야금병창으로 선사한다. 대미를 장식할 무대는 한국 농악놀이에서 파생된 소고춤과 함께 하는 풍물판굿 공연이다. 남도민요 연곡으로 이정아·최잔디·이태경 명창 그리고 전 출연자가 함께 화려한 무대를 연출한다. /최명진기자

# 대동문화재단,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성료

‘제봉술 마음리셋’ 등 호평

(사)대동문화재단(대표 조상열)의 2022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비 개인 제봉, 마음을 걷는 시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고택과 종갓집을 활용, 전통문화에 대한 현대인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단은 지난 여름부터 ▲고대감택 사랑방 ▲여름방학 제봉스테이 ▲제봉레시피 ▲제봉술 마음리셋 총 네 가지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운영했다.

프로그램은 광주 시민과 전남도민을 포함한 총 139명이 참여해 숲의 다양한 자연 에너지를 몸과 마음에 채우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총효열이 깃든 고경명 일가, 그 이면에 가려져 있던 고원희 가옥이 가지는 색다른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자리였다.

산림문화연구소 소속 산림치유지도사로 활동하고 있는 하경좌 외 3인이 강



‘제봉술마음리셋’ 활동 모습 (대동문화재단제공)

사로 나서 산속 힐링 테라피, 가을 꽃차 블렌딩, 아로마 마사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다가갔다.

특히 차를 마시며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음악 테라피’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의 지친 마음을 음악으로 위로하며 큰 호평을 받았다.

프로그램은 내년에도 운영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사)대동문화재단 누리집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명진기자

# CBS가 한국교회와 함께 기후·생명 회복을 위한 행동에 나섭니다

- 기후·생명 회복 위한 <환경주일 목회서신·공동기도문> 채택
- 창조질서 회복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캠페인 확산
- 기후난민공동체 지원 사업 전개
-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생태보존 교육 실시

CBS, (사)푸른아시아, 한국교회 15개 주요 교단, 환경부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공동협약 체결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운동본부 출범 - 2022. 4. 26

